

‘황금알 낳는 IP’… 게임사, 영역 넓히고 글로벌 협업 강화

(지식재산권)

넥슨, ‘던전앤파이터’ 3D 작업화 넷마블, 지브리스튜디오와 협력 엔씨, 히트작 ‘리니지’ 확장 가속 PC 게임 모바일로 출시 후 흥행

3N(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간의 지식재산권(IP)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각자 기존 게임 IP를 더욱 확장시키거나 해외 유명 애니메이션 IP를 확보하면서 게임 스토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이 자사의 유명 게임 IP 던전앤파이터 3D 작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넷마블도 최근 출시한 게임 ‘제2의나라’에서 레벨파이버와 협력해 지브리 IP를 확보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의 IP를 리니지 M, 리니지2M까지 확대해 놓은 상태다. 또 하반기에는 리니지W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넥슨·엔씨, 기존 IP 확장 시도

던전앤파이터를 운영하는 넥슨의 자회사 네오플은 던전앤파이터의 IP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오버킬’이 대표적이다. 현재까지 해당 프로젝트로 완성될 게임의 구체적인 출시일이 알려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넥슨은 지난 8월 개최된 ‘넥



제2의나라 이미지.

/넷마블

슨 뉴 프로젝트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던전앤파이터 IP를 활용한 3D 액션 RPG(역할수행게임) 작업 프로젝트 오버킬의 플레이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쇼케이스에서 넥슨이정현대표는 “개발팀 규모를 확대해 기존 이용자 뿐만 아니라 신규 이용자가 즐기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점차 완성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라며, “이밖에도 네오플 액션스튜디오는 던파 IP를 활용한 또 다른 신작 ‘던파 모바일’과 ‘프로젝트 BBQ’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엔씨소프트는 자사의 히트작 리니지

IP를 확장하고 있다. 리니지는 신일숙이 그린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해서 1998년부터 PC게임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는 IP를 확장해서 PC보다는 모바일 위주로 게임을 출시하고 있다. 2017년 리니지M이 출시된 이후 구글플레이스토어 매출기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10월11일 현재는 2위에 올라 있다. 이어 나온 리니지2M도 인기를 끌고 있으며 10월11일 구글플레이스토어 매출기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 PC 게임으로만 남았다면 인기가 시들었을 수도 있는 IP지만 모바일 게임으로 계속해서 재창작하자 현재까지도 엔씨

소프트의 대부분 매출을 차지할 정도로 IP 영향력이 커진 것이다.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리니지의 IP를 계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1월4일에는 ‘리니지W’의 글로벌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넷마블, ‘IP 확장’ + ‘콘텐츠사 협업’

넷마블은 기존 IP를 확장하면서도 글로벌 콘텐츠사와의 협업을 통해 IP를 확보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기존 IP 확보전략은 ‘세븐나이츠’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세븐나이츠는 2014년 출시 후 7주년이 됐다. 네이버 공식 카페의 가입자 수만 110만명이 넘어 국내 모바일 게임 중 최대의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는 구글플레이스토어 상위권에서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7년간의 업데이트를 통해 다양한 스토리·캐릭터 IP를 지닌 슈퍼 콘텐츠로 부상했다.

넷마블은 이러한 세븐나이츠의 IP를 활용해 ‘세븐나이츠’를 작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게임은 전작의 20년 후 세계를 3D 기반으로 구현했다. 또 닌텐도 스위치 버전의 ‘세븐나이츠 타임원더러’도 작년 공개했으며 ‘세븐나이츠 레볼루션’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콘텐츠사와의 협업을 통해 I

P를 확보한 사례는 ‘제2의나라’가 있다. 제2의나라는 레벨파이버와 지브리스튜디오가 협력한 판타지 RPG 니노쿠니를 넷마블이 RPG로 재탄생시킨 작품이다. 게임 배경음악도 지브리 애니메이션 OST를 만들어 온 유명 작곡가 히사시 조가 제작했다.

제2의나라는 원작의 세계관을 새롭게 구성해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카툰 렌더링 방식의 3D 그래픽이 가장 큰 특징이다. 마치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게임으로 구현한 것 같은 플레이 환경이 특징이다.

게임을 처음 시작하면 가상현실 소울다이버스를 통해 또 다른 세계, 즉 제2의 세계를 만나게 된다.

넷마블 관계자는 “우연한 계기로, 레벨파이버와 ‘니노쿠니’ IP를 논의하면서 ‘제2의 나라’ 개발이 시작됐다”며, “모바일 MMORPG의 대중화, 세계화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당시, 레벨파이버와의 만남이 있었고, 니노쿠니IP가 적합하다고 봤다. 레벨파이버의 적극적인 개방적인 모습도 IP를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너지가 날 수 있는 IP와의 협업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준혁 기자 junhyuk@metroseoul.co.kr

중기부, ‘탄소저감 스마트공장’ 24곳 선정

뿌리 13곳, 섬유 6곳, 자동차 5곳
탄소중립 필수 3대 패키지 특화 지원
기업당 7000만원서 최대 2억원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탄소저감에 특화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할 제조 중소·중견기업 24개사를 선정했다.

11일 중기부에 따르면 뿌리·섬유 등 고탄소 배출업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기술을 적용, 저탄소 혁신공정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이 사업은 ▲에너지 진단·설계 컨설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탄소저감 공정혁신 ▲고효율 설비 개체 등 탄소중립 필수 3대 패키지를 원스톱으로 특화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한 24개사의 업종은 용접·주조 등 뿌리 13개사, 섬유 6개사, 자

동차 5개사가 포함됐다.

기업당 공정의 스마트화 구축목표에 따라 7000만원(생산정보디지털화)에서 2억원(실시간 정보수집·분석)을 지원한다.

또 친환경 설비 등을 도입하는 경우엔 전체 공정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방식으로 최대 100억원까지 후속 연계지원도 가능하다.

금속 주조를 통해 자동차부품 등을 생산하는 뿌리기업인 ㈜영진주물은 제조공법 특성상 에너지 다소비로 인한 비용 증가 등이 부담이었다. 에너지 손실 원인은 용해, 모래주형 제거 등의 공정과 연계된 집진 설비, 공기압축기 등의 노후화로 인한 가동효율 저하가 있었다.

이 때문에 영진주물은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인버터 설치, 고효율 공기압축기 등의 교체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함께 연간 약 200kg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어링, 기계부품 등을 열처리하는 뿌리업종의 ㈜신원열처리사는 제품 종류에 따라 열처리 시간, 가스 주입 조건 등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축적된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최적의 열처리 조건을 적용하기 어려워 에너지 손실 등의 애로를 겪고 있었다.

이번 지원사업을 계기로 열처리로의 데이터 계측 시스템, 제품 종류에 따른 열처리 조건 자동제어, 그리고 에너지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전기료와 가스료 10% 이상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왼쪽)이 지난 8일 서울 성수동에 있는 대도도금을 방문, 정광미 공동대표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중진공

김학도, 뿌리산업 현장 방문 ‘애로 청취’

(중진공 이사장)

서울 성수동 대도도금 방문
“도시형 뿌리산업 성장 지원”

김학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뿌리산업 현장을 찾아 애로를 청취했다.

11일 중진공에 따르면 김학도 이사장은 지난 8일 도심 속에서 뿌리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서울 성수동에 있는 대도도금을 방문했다.

표면처리(도금) 등 뿌리산업은 최종 제품에 내재돼 부가 가치를 높이는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다. 하지만 환경 이슈 등으로 준공업지역인 성수동에서도 점차 관련 업체를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대도도금은 도금 분야 대한민국명장인 정광미 기술대표를 중심으로 스마트 자동화 설비를 자체 개발해 구축하는 등 최근의 탄소중립·친환경 경영 트렌드에 맞춘 도시형 뿌리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한 건물에 대기정화, 폐수정화 시설을 갖추고 청년 인력들이 끼리는 3

D공정에는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등 표면처리(도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대도도금 정광수 경영대표는 “뿌리산업 기업도 정화설비 등 시설투자를 통해서 환경 이슈를 적절히 관리한다면 도심 내에서도 충분히 성장해나갈 수 있다”면서 “설비도입 과정에서 중진공 시설자금 등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실제 대도도금은 성수동에 대기·폐수 배출시설과 도금·도장·연마 작업에 최적화된 7층 규모의 사업장을 구축하고 스마트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김학도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환경과의 공존을 모색할 시점”이라면서 “중진공은 대도도금과 같은 도시형 뿌리산업이 성장하고, 나아가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삶의 현장’ 사진전

중소기업중앙회가 ‘제1회 노란우산 삶의 현장 사진전’을 연다.

중기중앙회는 한국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연합회와 함께 이달 12일부터 오는 11월5일까지 총 상금 1650만원 규모의 사진전 공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위해 마련됐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진은 오는 11월 말 열리는 사진전을 통해 선보인다.

/김승호 기자

중견련, 중견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나서

넥스트랜스와 발굴·매칭 등 ‘맞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글로벌 투자전문기업인 넥스트랜스와 손잡고 중견기업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11일 중견련에 따르면 지난 8일 넥스트랜스와 ‘중견기업 신성장 동력 발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중견련에선 반원익 상근 부회장, 이충열 기업성장지원본부장이 참석했고, 응웬 부퐁 주한베트남대사, 홍상민 넥스트랜스 대표, 채승호 상무

가 자리를 함께 했다.

두 기관은 첫 협력사업으로 약 100억 원 규모의 베트남 차세대 유니콘 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향후 제조 역량이 우수한 국내 중견기업과 해외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 매칭하는 데 협력할 예정이다.

넥스트랜스는 크로스보더 비즈니스 전문 투자유치 컨설팅 기업으로 2004년 설립 이후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북미, 베트남 등 여러 국가의 혁신 기업 85개사를 선정해 5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다. /김승호 기자